통계청,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車·화학제품 견인 생산 1.1%↑… 소비 1.2%·투자 0.2%↓

지난달 국내 전산업 생산이 늘었지만 소비와 투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은 기저효과로 인해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1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한 자동차를 필두로 화장품 등 화학제품이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는 두 달 연속 생산이 줄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0%대 증가했고, 출하도 전년 동기 대비 1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1.1%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네 달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 전환했다.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8.1%), 화학제품(6.4%)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4.4% 줄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2.3%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업황이 좋은 상태인데 기존에 반도체 상황이 좋았던 기저효과가 있다"며 "지수 자체 수준도 괜찮고 전년 동월 대비로 봐도 지난달보다는 줄었지만 나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수출은 북미쪽에서 잘 되고 있고 업황은 괜찮은 것 같다"며 "자동차 관련 신생부품 등이 좋아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전월 대비로 15개월 만에 최대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컴퓨터(-23.8%) 등에서 줄었지만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2.8% 증가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19.4%), 컴퓨터(-37.8%) 등에서 줄었으나 전자부품(25.0%), 자동차(7.2%)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자부품(27.4%), 기계장비(6.4%) 등에서 늘었으나 석유정제(-8.0%), 화학제품(-2.7%)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9% 증가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0%로 전월대비 1.0%포인트(p) 하락했다.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0.2% 쪼그라들었다. 설비투자는 작년 10월(-1.9%), 11월(-2.0%) 감소세를 보이다가 12월 2.3%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에는 다시 5.8% 줄어들었고 2월에는 9.6% 올랐지만 지난 3월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인 6.3% 감소한 이후 지난달 0.2%로 하락폭이 줄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4%)에서 투자가 줄었지만 자동차 등 운송장비(0.3%)에서는 소폭 늘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6.1%) 및 토목(1.7%)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5.0% 증가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하며 한 달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후 지난달 다시 감소 전환한 것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p) 감소했지만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증가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동행지수의 경우 생산 쪽은 좋은데 기술 쪽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반영돼 있다"며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보이기 때문에 동행지수는 지난 1월에 좋았던 건설 쪽이 빠지면서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전북신보')은 지난달 31일 39세 이하 청년 직원 10명을 청년 이사로 임명하고 제1회 청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신보, 제1회 청년 이사회 개최

2030세대 청년 직원들과의 세대간 소통 협의체 마련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전북신보')은 지난달 31일 39세 이하 청년 직원 10명을 청년 이사로 임명하고 제1회 청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신보 청년이사회는 2030 청년세대 실무자로 구성된 소통 협의체로, 청년 중심의 혁신아이디어 발굴과 조직 내 소통과 공감의 혁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날 청년이사회에 참석한 청년이사들은 일과 삶의 균형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탄력근무제 활성화 방안과 인사이동 사전 예고제 도입을 통해 갑작스런 인사이동으로 인한 고객 불편과 직원 피로도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안건으로 채택해 심도있는 토의와 함께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고객과 도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 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해 예방할 수 있도록 반대의견 제시 담당자를 지정해 회의를 진행하는 "빨간모자 담당제도"를 도입했다.

빨간 모자를 쓰고 회의에 참석한 이진아 청년이사는 "회의 안건을 고객의 입장과 중장년 직원들의 시각에서 장단점을 분석한 후 의견을 제시해 세대간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 /김옥기 기자

2024 방콕 식품박람회 참가 · 전북 농수산식품 공동관 운영

바이오진흥원, 4개 기업 참가… 현장계약 50만불 · 수출상담실적 108만불 성과 거둬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전북도와 함께 동남아 시장개척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일간 방콕 IMPACT EXHIBITION에서 열린 '방콕 식품박람회(THAIFEX ANUGA 2024)'에 참가해 전북 농수산식품 공동관을 운영한 결과 약 50만불의 현장 계약과 약 108만불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농수산식품 업체는 4개 기업(5개 품목)으로 콜라겐, 프로폴리스, 당고고추가공품, 조미김 등의 제품을 홍보·전시하였으며 동남아 및 세계 여러 국가의 바이어들과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최근 태국의 1인당 식품 소비액은 2018년 약 755달러에서 연평균 4.8% 증가하여 2022년 913달러로 성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건강기능식품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참가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어들과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전주에서 조미김 등을 유통하는 C기업은 이스라엘 A바이어와 조미김·스시김을 올해 하반기부터 약 50만불 가량 수출하는 현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박람회에 참가한 C기업 관계자는 "이번 방콕 식품박람회를 통해서 동남아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세계 여러 국가의 진성 바이어들을 만나 퀄리티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B기업 관계자는 "같은 박람회에 지속적인 참가 지원을 통해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적극적인 현지 시장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도내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NH농협은행 '부모님과 함께하는 허그팜 금융교육'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는 지난달 30일 본부 4층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허그팜(Hug Farm)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참가 학생들은 실제 은행 창구에서 쓰이는 지폐계수기, 통장 단말기 등 금융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게임과 우리 농산물 구매 등의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얻었다.

이날 센터에는 특별히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방문하여 아이들과 소통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수 있도록 NH농협은행 내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청소년 금융교육을 전북본부가 적극적으로 실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환 본부장은 "앞으로 청소년 대상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내 많은 학생들이 금융 마인드를 향상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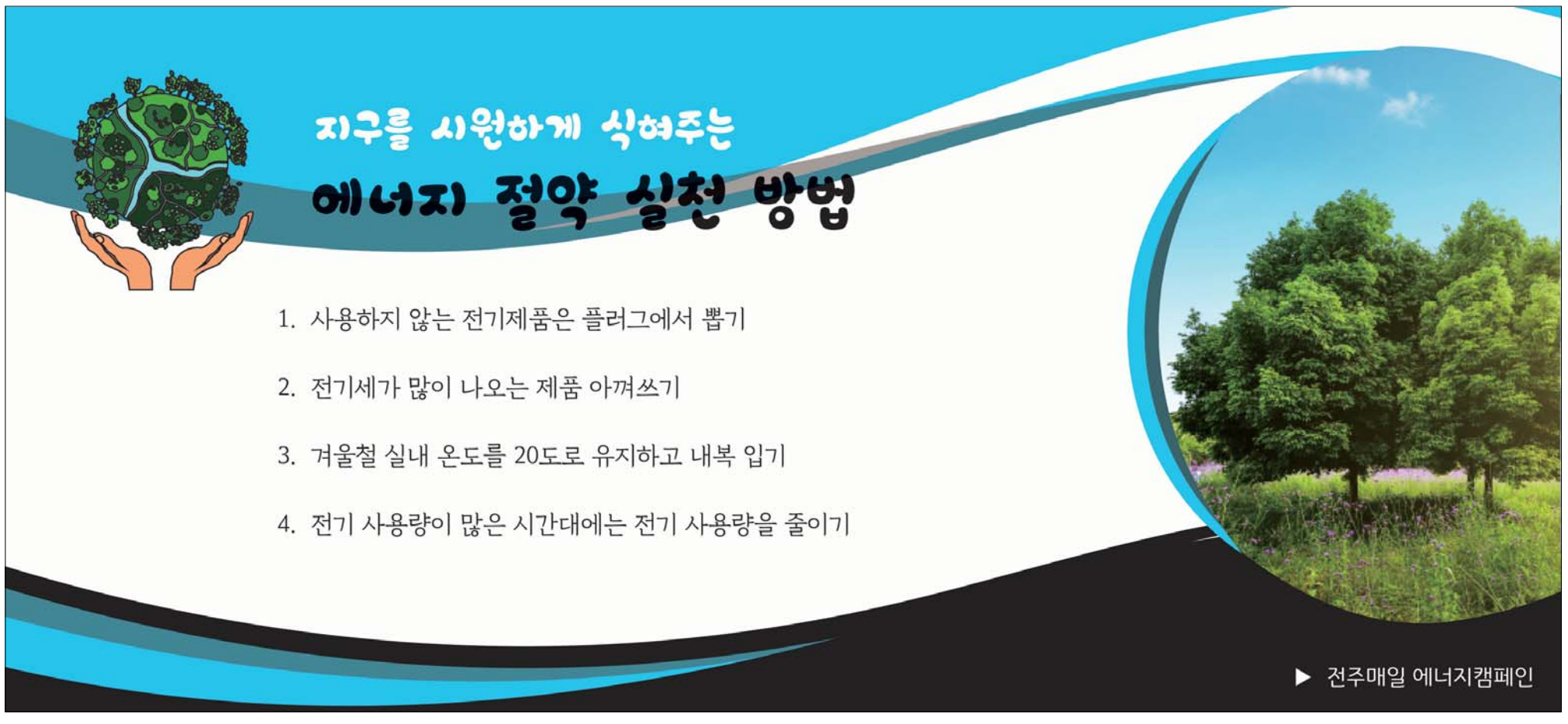
LX, '전북 자체감사기구 합동교육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감사인의 감사 전문성 강화와 내부통제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교육원 합동교육을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LX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교육은 감사인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감사교육원 맞춤형 교육으로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 소속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전북대학교병원 5개 기관 자체감사기구 실무자 총 39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상급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감사 실무기술을 비롯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최신 감사 트렌드 분석, 감사인의 자세와 전문성 등 감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합동교육은 지난 3월 열린 제1차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에서 감사인의 전문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감사인의 감사 전문성 강화와 내부통제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교육원 합동교육을 개최했다.

LX 이태용 상임감사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감사 혁신을 위해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이번 감사교육원 교육을 통해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감사인 역량 강화와 감사품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